



어린이·청소년 치아관리

전남대 치과대학 소아치과 최남기 교수

불소도포로 충치예방, 부정교합은 교정으로

성인 치과질환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의 구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과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특히 어린 시절의 구강건강관리는 일생을 통해 좋은 구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아치과에서는 출생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 예방치료, 치아우식증치료, 치아외상치료, 교정치료, 장애아동 치료 등을 하고 있다.

돌 무렵부터는 6개월에 한번 치과검진 필요

어금니 뒤편 1대구치는 영구치 꼼꼼히 관리

◇시기별 올바른 치아관리 및 잘못 알고 있는 치아관리=치아가 나기 전에는 수유 후에 거즈나 화장 솜으로 물을 물려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좋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이런 방법들과 병행해 서 실리콘 칫솔로 앞니들을 닦아주고 이때도 치약은 콩알만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물만으로 닦아줘도 된다.

대략 돌 무렵에는 충치가 생길지 아인지도 아닌지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돌에서 생후 1년 6개월경에는 모유수유나 우유병을 통한 수유를 중단하고 컵으로 먹는 습관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식이 습관은 치과의사나 소아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어금니가 나게 되면 어린이용 칫솔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도 치약은 콩알만큼만 사용해도 된다. 닦는 원칙은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닦아주면 된다.

임안의 치태 및 세균마는 의외로 잘 안 된다며, 마치 실크대나 세면대에 물가가 끼는 것과 같아서 매일 정성껏 닦아주지 않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충치를 유발하게 된다.

집에서 닦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충치가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서 치면 세마 및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 충치 및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

어금니가 모두 나와서 치아 간에 접촉이 생기거나 앞니가 춤출히 불어

있는 아이들은 치실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치아 사이는 칫솔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고 음식물이 끼어도 잘 빠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실로 자기 전 하루에 한번은 치아 사이를 청소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영구치는 젖니가 빠져야 난다고 알고 있는데, 만 6세경에는 젖니 어금니의 뒤편으로 제 1대구치라는 영구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치아가 없던 자리에 나기도 하고, 또 잇몸에 덜어서 잘 닦기 어렵고 아이들이 닦아주려 하면 구역질을 쉽게 내므로 제 1대구치는 올라오는 동안에 충치가 많이 생긴다.

이 치아는 평생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치아이므로 아이가 캐다가 양치를 맡기지 말고 부모는 잘 닦이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다 올라오게 되면 치면염구 전세(설린트)이 충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어릴 때 받는 교정 치료=부정교합이란 치아나 턱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씹는 기능, 치아나 잇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능력, 턱의 성장, 말하는 능력의 발달, 잇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교합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얼굴, 턱, 치아의 크기와 모양은 대개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적인 요소 또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치과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기에 부정교합을 알아낼 수 있다면, 부정교합이 생기려고 할 때 치아를 옮겨주고, 나중에 치아를 빼서 고정

해야 할 필요를 줄여 준다. 올바른 치아는 닦기 쉽고 충치나 잇몸질환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치아가 움직이는 장치는 크게 고정식과 가철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철식 장치는 철사와 플라스틱의 재료로 만들며 환자가 구강 내에서 빼다 쪘을 때 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동시에 아랫니와 윗니에 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 장치의 경우 어린이가 얼마나 이 장치를 치과의사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착용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가철식 장치의 장점은 장치를 닦기 쉽다는 데 있다.

고정식 장치는 브레이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며 치아에 직접 붙이는 장치이므로 치아의 이동을 조절하기가 쉽다. 그러나 환자가 장치를 했을 때 구강상태를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장치 주위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곳에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체육증기자 chae@kwangju.co.kr

■부모가 행거줘야 할

어린이 구강 건강 요령

1. 간식의 횟수 줄이기
2. 불소치약으로 하루 두 번씩
잘 닦아주기
3. 하루 한번 치실 사용하기
4. 적절한 때 설린트 해주기
5. 정기적인 치과검진

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다.

어릴 때 하는 교정치료는 후에 광범위한 교정치료를 받을 가능성을 줄여준다. 어린이의 교정치료는 비뚤어진 치아를 바르게 하고, 치아를 바른 자리에 나게 한다. 또 교합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중에 치아를 빼서 고정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교합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얼굴, 턱, 치아의 크기와 모양은 대개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적인 요소 또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치과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조기에 부정교합을 알아낼 수 있다면, 부정교합이 생기려고 할 때 치아를 옮겨주고, 나중에 치아를 빼서 고정

해야 할 필요를 줄여 준다. 올바른 치아는 닦기 쉽고 충치나 잇몸질환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치아가 움직이는 장치는 크게 고정식과 가철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철식 장치는 철사와 플라스틱의 재료로 만들며 환자가 구강 내에서 빼다 쪘을 때 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동시에 아랫니와 윗니에 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 장치의 경우 어린이가 얼마나 이 장치를 치과의사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착용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가철식 장치의 장점은 장치를 닦기 쉽다는 데 있다.

고정식 장치는 브레이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며 치아에 직접 붙이는 장치이므로 치아의 이동을 조절하기가 쉽다. 그러나 환자가 장치를 했을 때 구강상태를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장치 주위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곳에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체육증기자 chae@kwangju.co.kr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건물매도

신한공인중개사

수완지구 상가 분양 임대(특별할인)

•롯데마트 앞 국민은행, 신현은행 1층~7층 까지

•분양임대중 (9월 30일 까지 20% 특별할인)

•병원, 한의원, 학원 독서실, 헬스, 모든 업종 가능

•롯데마트 앞 국민은행, 신현은행 1층~7층 까지

•롯데마트 앞 국민은행, 신현은행 1층~7층